

두 개가 하나 되어 새로운 생명이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반발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하나의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달과 해, 물과 불(물기와 온기)처럼 서로 상반되는 것들은, 서로를 채우고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거기에는 발전이 있습니다. 한 쪽만으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으며, 하물며 서로 다투고 논쟁만 하고 있어서는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이치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천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의 천리교

**좁은 길은 걷기 쉽고,
한길은 걷기 어렵다.**

지도말씀 1890.4.6



차를 운전할 때, 좁은 골목보다 고속도로가 더 운전하기 쉽지요. 그러나 큰길은 오히려 지나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길은 조심해서 지나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큰길은 방심하기 때문에

다친다.’고 하십니다. 좁은 길을 다닐 때는,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자전거나 아이들을 의식해서 항상 긴장하게 되지요. ‘좁은 길은 마음의 길’이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방심한 틈에 나서는 큰길은 오히려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https://www.tenrikyo.or.jp/kor/>

